



중진공, 'APEC 중소 혁신포럼'서 디지털 전환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닷새간 이어질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열렸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환 현황과 도전과제 ▲정책금융과 민간 협력을 통한 금융혁신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중소기업 혁신 전략 ▲APEC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진공



유희스, 박기량 치어리더와 줄음운전 방지 캠페인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브랜드 유희스(EUROX)가 지난 25일 모델 박기량 치어리더(사진)와 함께 경기·강원 지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줄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1일 롯데정밀화학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장시간 운전에서 지친 트럭 운전자들에게 잠시의 쉼과 응원을 전하고, 줄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정밀화학



LG U+, 디지털고객경험지수 2년 연속 1위

LG유플러스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5년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첫 통신 부문 평가 이후 2년 연속 1위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중심의 디지털 전략과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LG유플러스 전경혜 디지털CX/성장담당(오른쪽)과 방옥재 디지털커머스개발Lab장(왼쪽)이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롯데웰푸드, 이색 러닝대회 '2025 설레임런' 성료

롯데웰푸드는 지난 8월 31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색 러닝대회 '2025 설레임런'이 약 3000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2025 설레임런은 '열받는 러닝대회'를 컨셉트로 한 이색 스포츠 행사다. /롯데웰푸드



카카오창작재단, 158명 작가에 창작공간 지원

카카오창작재단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158명 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하며 건강한 IP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창작재단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을 진행, 웹툰 작가 49개팀 총 158명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창작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25 기후기술 글로벌 확산 지원

비영리·필란트로피 중심 국제 협력 파트너십 발족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아시아 기후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을 공식 출범했다. 재단은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CMKF-GIH 기후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열고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RMI·Third Derivative와 함께 비영리·필란트로피 중심의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기술 발굴·자원 연결·글로벌 협력'의 3단계 구조를 통해 기후기술의 사업화와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기관은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투자 유치, 수요처 연결 등을 지원할



2025 아시아 기후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 패널토의 모습.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아시아 기후기술 스타트업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과 런칭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최재호 사무총장,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김효은 대표, RMI·Third Derivative 로이

토버트 총괄이 참석해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기후·자원·생태 분야 18개 과제에 180억원을 지원하고, 기후기술

혁신 기업 15개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내외 기후기술 협력과 스타트업 육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감비아 환경·기후변화·천연자원부 삼부 킨데 선임담당관이 주제 강연자로 나서 아프리카의 기후기술 수요와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고, 패널토의에서는 스타트업 성장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단 관계자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기후기술 혁신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 '그린 소사이어티' 사업을 2023년 론칭해 진행하고 있다"며 "설립자의 철학을 계승해 기후기술에 대한 혁신과 도전이 글로벌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공모전' 시상식 3개 분야서 32개 작품 수상

삼성전기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푸른코끼리 공모전'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회 푸른코끼리와 함께하는 학교·사이버폭력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학생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푸른코끼리 사업은 ▲예방교육 ▲심리상담 ▲캠페인 ▲학술연구 ▲플랫폼 구축 등 5대 과제로 운영된다. 삼성전기가 주관하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참여한다.

올해 공모전은 포스터·웹툰·에세이 3개 분야에서 총 32개 작품이 수



제6회 푸른코끼리 학교폭력·사이버폭력예방 공모전 푸코시상식에서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

상작으로 선정됐다. 초등생과 교사 등 다양한 참가자가 비폭력 메시지를 제시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 정다연 양이 '지금 웃고 있니 누군가는 울고 있어' 포스터로 관운학원 이사장상을, 초5이주아 양이 '가벼운 터치 무거운 상처' 포스터로 삼성전기 대표이사상을 받았다. 이대일 교사는 관계 중심의 따뜻한 교육 경험을 담은 에세이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맥도날드, MAD STARS서 6개 부문 수상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한국의 맛' 광고 캠페인 성과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의 광고 캠페인이 '2025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에서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2008년 출범해 올해로 18회를 맞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콘텐츠 국제 행사다. 매년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 프로젝트 광고 캠페인은 올해 해당 광고제에서 금상 1개, 은상 2개, 크리스탈상 3개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의 맛 프로젝트는 맥도날드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로컬 소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의 광고 캠페인이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에서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싱 프로젝트다. 국내산 고품질 식재료를 활용해 고객에게는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맥도날드는 매해 한국의 맛 광고 캠페인을 통해, 실제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한 영상 광고를 선보이며 진정성을 더해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양라운드스퀘어, 푸드테크 공모전 진행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에 중학부·고교부 32개팀 참여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청소년 푸드테크 공모전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Roundsquare Prize)'의 첫 오프라인 행사인 예선 2차를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푸드테크 공모전이다. '극한의 기후 환경에서 활용될 식품 및 푸드테크 아이디어'라는 주제 아래 아이디어의 주요 원리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나 구현 방법을 기획하는 구성으로 진행됐다.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는 앞서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참가 신

청 및 연구기획서 점수를 받았으며, 중학부 33개 팀, 고교부 51개 팀 등 총 84개 팀, 208명이 참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중 예선 1차 단계를 통과한 중학부 14개 팀, 고교부 18개 팀 등 32개 팀(총 82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예선 2차는 각 팀에서 제출한 연구기획서를 기반 삼아 3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별도의 강연도 진행됐다. 먼저 오민환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는 'AI의 낙관주의적 사고'를 주제로 AI와 푸드테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과학 전문 인플루언서 수드래곤은 '때려서 고기굽기, 우주식품 생존기 등 음식에 대한 각 분야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HDC현산, 노조와 현장 합동점검 시행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방문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 강화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노사 합동 점검은 지난달 29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진행됐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 점검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사와 노동조합 사무국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노사 합동 점검단은 현장의 각 동 휴막이 가시설 해체, 각 동 거꾸집·철근 및 갱폼 설치, 지하층 및 지상층 콘크리트 타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신희준 신부 △진료부원장 광승기 교수 △행정부원장 최예원 신부 △연구부원장 김명신 교수 △암병원장 이명아 교수 △혈액병원장 김유진 교수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교수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교수

부음

▲박미영(전 건국대 강사)씨 남편상, 김태은(대한항공 과장)·시원(롯데손해보험 책임)씨 부친상 = 한겨레신문사 회장,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4일 오전 9시30분. 02-2227-7500